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뿔 놓고 줄다리기 하나

韓 '30개월 미만' 수출증명 해달라 美 협정 뒤집는 것... 민간에 맡겨야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출입 제한 문제를 놓고 한국과 미국 통상·농정당국 간 줄다리기가 팽팽하다.

이렇게 협상이 끝난 14일(현지시간) 양측 대표들이 합의로 일관하고 있어 어느 정도 접점을 찾았는지를 가능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다만 김종훈 본부장의 협상 상대인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16일 오후(현지시간) 미·중 전략대화 참석을 위해 메릴랜드 주(州) 아나폴리스로 이동해야 돼 15일 하루 협상을 쉬기로 한 점은 무엇보다 1차 결과물이 나왔을 가능성을 점치게 하고 있다.

◇수출증명 프로그램 놓고 논란=워싱턴 협상의 핵심은 '미국 정부가 30개월 미만 쇠고기 수출을 어떤 방식으로 증명해 줄 수 있느냐'이지만 이를 관철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우리로서는 자율규제 실효성 확보 차

원에서 미국 정부가 한국형 쇠고기 작업장에 '30개월 미만' 조건의 강제성을 띤 수출증명(EV) 프로그램을 적용해 주는 것이 최선이지만, 미국 입장에서 고려해야 할 사안이 적지 않다.

자신들이 국제수역사무국(OIE) 지침을 내세워 관찰한 수입위생조건을 두 달 만에 완전히 뒤집는 것일뿐 아니라 일본, 대만 등 다른 수입국과의 협상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미국의 부담을 덜면서도 실질적으로 EV 프로그램을 가동시킬 수 있는 묘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수출증명(EV) 프로그램은 미국 농무부가 각 나라와 맺은 수입위생조건에 맞는 쇠고기를 수출하기 위해 작업장을 감독하는 체계를 말한다.

◇정부개입 티 안내기도 안갯속=30

개월령 이상을 막아내는 문제와 더불어 또 하나의 문제는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할 정부의 조치문제다.

만약 미국이 EV 프로그램을 강하게 시행해달라는 우리 측 요구를 수용한다면 자율규제에 대한 별도의 정부 보증은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일정 규제를 민간업체의 자율에 맡긴다면 '춥민심'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라도 실효성있는 담보가 마련돼야 한다. 이 때문에 양국 정부가 업계 간의 자율규제를 구속력있는 문서로 보증하는 방안이 제기됐지만 정부측은 "정부개입의 티가 나면 WTO 통상규범 위반이 된다"며 주저하고 있다. 그렇다고 비구속적인 보증이 이뤄진다면 국내 여론을 만족시킬 수 없어 정부로서는 험겨운 상황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등원 선언' 수순 밝기

손 대표 등원 시사...17~19일 가능성

통합민주당이 이르면 이번 주 내에 등원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단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15일 공개적인 등원 불가피론을 전개하며 등원 가능성에 무게를 더 하고 있다.

손 대표는 이날 당사에서 기자회견과 오찬 간담회를 잇따라 갖고 "국회 등원을 무한정 늦추고 있을 수는 없다"는 입장과 함께 "나 혼자 나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선택한다면 두말없이 (국회에) 들어간다"는 직설화법을 통해 등원 선언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손 대표의 이날 언급은 제1야당이 국회의장을 거부하고는 실 자리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고유가 등 경제난이 심화되고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날로 팍팍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81석의 야당이 산적한 민생현안을 외면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더 이상 보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손 대표가 김대중 전 대통령과 정진석 추기경,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수경스님, 김지하 시인 등 원로들을 만나 의견을 구한 것도 등원을 경계하는 당 안팎의 반대 목소리를 잠재우고 국회로 들어가기 위한 명분 축적의 행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정치권에서는 '광우병 국민대책회의'가 오는 20일까지 정부가 쇠고기 재

협상을 선언하지 않을 경우 정권퇴진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힌 사실도 민주당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제1야당이 국회는 비워둔 채 촛불집회에 동참한데 이어 시민단체의 정권퇴진 운동에까지 휘말려 들어가는 곤란한 상황을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당내 일정도 민주당의 등원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당내 정치일정상 7·6 전당대회를

앞두고 16~17일 후보등록 이후 18일부터 대표와 최고위원 출마자들이 전국투어에 나서는 점도 민주당이 더 이상 '거리의 정치'에만 몰두할 수 없는 현실을 만들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17~19일께 등원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즉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가 17일께 나올 예정인데다 '국민대책회의'가 20일을 재협상 선언 마지노선으로 잡았기 때문이다.

당내에서는 여전히 명분과 성과가 약한 등원에 상당한 반감이 있다는 점에서 단계적 등원론도 제기되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쇠고기 재협상 서명운동 김재균 통합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과 민주당 북구를 지역위원회는 15일 광주시 동구 중심사 입구에서 등산객들을 상대로 '쇠고기 재협상 및 가축전염병 개성 국민청원'을 위한 서명을 받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美, 쇠고기 재협상 팬 車 등 FTA와 연계”

한 방미단 귀국

미국 정부와 의회가 쇠고기 재협상을 근본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하고, 이 문제를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 '쇠고기 대책 방미단'은 15일 기자회견을 갖고 닷새간의 방미 활동을 설명하며 "미국은 양국간 합의된 내용에 대한 재협상을 근본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고, 면담자마다 이구동성으로 완강히

반대했다"면서 "재협상 이야기를 하면 대화 가 진전이 안됐다"고 밝혔다.

방미단은 이어 "30개월령 이하 쇠고기가 미국 수출량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만이라도 먼저 수출하자는 의견이 대부분이었고, (쇠고기 수출) 유예기간을 오래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중요한 조건으로 제시한 의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미국에서는 재협상(re-negotiation)이라는 단어를 아주 협의로 생각한다. 협상 자체를 새로 시작한다고 본다"면

서 "협상 전체를 다시 하자고 하면 쇠고기 뿐 아니라 FTA안에 있는 자동차에 대한 재협상을 들고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황진하 단장은 "미국에서는 쇠고기와 관련해 한국인들이 모여 반대집회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었다. 한국에 정치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면서 "최초 반응은 왜 왔는지,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거북스럽게 민났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연희뉴스

李 대통령 인적쇄신안 막판 '고심' 거듭

이명박 대통령은 주말 동안 특별한 일정 없이 내각 및 청와대 수석 인적쇄신을 포함한 국정수행 방안을 놓고 막판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적쇄신과 관련, 이 대통령은 국무총리 교체 여부와 18대 국회 개원 지연 상황 등을 감안해 일단 청와대 수석 인사를 먼저 한 뒤

나중에 개각을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인사쇄신의 폭과 시기에 대해서는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특히 인사 실무팀에 후보자들의 검증자료가 아직 도착하지 않아 인선이 더 지연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5일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백지상태"라면서 "최근 언론에서 거론되는 인사쇄신안은 개인적이며 자발적 성격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도 이날 "일부 각료 및 수석 후임으로 거론되는 인사들에 대한 개인정보 열람동의서가 발부된 상황으로 들었다"며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검증 과정까지 포함한다면 17일, 18일이나 인적쇄신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대학편입 10명중 7명은 김영출신

www.kimyoung.co.kr

대학편입 김영에 맡겨라!

일반편입/ 학사편입/ 사범대편입/ 한의대편입/ 의약대편입

매일 공개설명회 10시/2시/ 4시/ 6시

★ 2009 편입대비 강좌안내 ▶ 종합영문법, 어휘이론, 독해이론, 논리완성, 기초입문 수험생을 위한 M T, 자기점검을 위한 주간 TEST/ LEVEL TEST/ 월간 TEST

인생역전 개강 6월2일

상위권 대학편입 전문학원

김영 대학편입학원

광주 동부경찰서 뒤 227-8088

=정부는 올해안에 소방공무원 2,228명을 총원할 예정이다(성황리 강의중)=

7급 공무원 완전 대비

행정직, 교정직, 세무직, 관세직, 감사직, 법원직, 경찰직, 교정직, 보훈직, 소방직, 전산직, 복지직, 통번역, 건축직, 보건직

※ 보강직 23명, 권북16명 9월27일, 갈기56명 8월2일, 하울29명 (월강중) ※

금년 중·하반기 시험

7월1일 (주·아·밤모집) (현재예약접수중)

합격수강 회원모집

- 6개월 (총)회원 80만원
- 1년 (총)회원 120만원
- 합격시까지 170만원

=갈(感)이 좋은 학원! 『無等』을 찾아주세요!! =

www.mdgosl.co.kr

광주 동부경찰서 뒤 (중앙초교 우문앞) 222-4560

저렴한 광고비 뛰어난 광고 효과!

생활안내 광고

광고접수 및 문의 직통전화: 227-9600 FAX: 227-9500

웰빙시대 최고의 유망자격증

우리농산물 지킴이

농산물품질관리사

개강 6월 14일(토) - 주말반-

국가공인 5회시험

- 초기자격으로 최고의 유망직종
- 농산물품질관리법 29조의7에 의해 고용사실에 농림부 자금 지원
- ▶ 시험: 1차) 8월 31일 / 2차) 11월 9일

수강료 국가 지원

고용보험 가입자 수강료의 80% 환급

농산물 수입개방! 먹거리 문제에 따른 최고의 유망자격!! 초기자격을 잡아라!!

전남고시학원 전남여고건너편 (062)236-2468

새로운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서구점 ☎ 361-8111 북구점 ☎ 529-8111

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저자직강! 한국경제TV·부동산TV강사진

제18회 공인중개사시험 새롭출신 전국 수석 2명 배출(현대환 남 48세 최영아 여 31세)

개강 7월1일 (첫진도 시작반) 문제풀이특강 (핵심이론+단원별문제풀이강좌)

교용보험가입근로자교육비환급

수강료 50%·80% 환급 사전 접수비발

● 전국 최대규모의 공인중개사 전문학원(전국33개 학원체인) ● 최고의 교수진들로 강의 질하는 학원1위 ● 선배중개사분들이 추천한 1등학원 ● 믿음과 신뢰를 주는 학원1위

합격률1위 전국수석합격

새롭 행정고시학원

서구점 ☎ 361-8111 동성동 서구청 앞 광주은행 건물 2층 북구점 ☎ 529-8111 계림동 구시청사거리(중흥동)대림빌딩 옆 영송빌딩 6층